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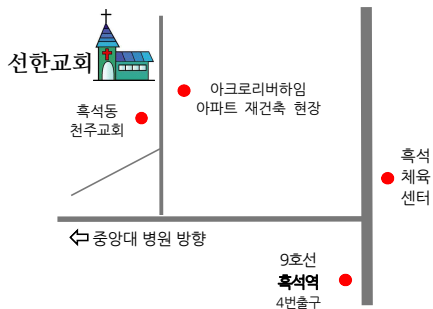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 일 예 배	1부 주일 오전 9:30	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	
	2부 주일 오전 11:00	유 아 부	오전 11:00 남전도회
오 후 예 배	주일 오후 3:30	유 초 등 부	오전 11:00 바 울 회
	(5째주 셀가족모임)	청 소 년 부	오전 9:50 마리아회
중 국 어 예 배	주일 오후 4:00	청 년 부	오전 1:00 드보라회
수 요 예 배	수요일 저녁 7:30	영 어 예 배	오전 3:30 에스더회
금 요 기도회	금요일 저녁 8:30		
새 벽 예 배	월-금요일 새벽 5:30		
	*월삭새벽예배 6:00		
셀 가족 모임	셀별로 정한 시간		

섬기는 분들

사 역 자	담임목사 임 춘 배	파 송 선 교 사	강성규 (러시아)
	교 육 목 사 권 인 혁	협 력 선 교 사	양병순 (카자흐스탄)
	전임전도사 김 진 만		이금주 (M국)
	협력전도사 오 효 남	국 내 선 교 사	오 인 숙
		국내선교사(협력)	한 배 선
은 퇴 장 로	박 회 태	관 리 장 로	손 석 규
장 로	조 윤 익 (집사장)	5 0 0 / 5 0 교 회	(1호) 필리핀 Good Church
	김 대 회		(2호) 세종 선한교회
	유 신 웅		신원섭 목사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버스 간선 151, 350, 360, 462, 640, 642, 752(효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17(중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앙대병원)

지하철 9호선 혹석역 4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사이용(동작 01, 10, 21)

06910 서울 동작구 혹석로13마길 1 (혹석동 173-30)
 대표전화 (02) 815-6213 FAX (02) 815-6065
 홈페이지 <http://www.sunhan.org>

표 어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딤후 2:1)
 Be Strong In The Grace
 실 천 사 항 선교사의 삶 기도회 참석 서로 돌아보기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삶 의 방 식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빌 4:1-7)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이제 너의 마음을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녕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네 영혼을 보존하리라
 에스겔 3:16~21



기 독 교 선한교회
 한국침례회

담임목사 임 춘 배

오 전 예 배	오전 9:3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오전 11:00	

찬	양	32장 (통일 48장)
찬	양	412장 (통일 469장)
예 배 기 도	김대희 장로	
말 씬 봉 독	에스겔 3장 16~21절	
특	송	청년부
설	교	영적 파수꾼의 사명 (임춘배 목사)
헌 금 찬 양	304장 (통일 404장)	
헌 금 드 림	류은영 방성자 백미경	
광	고	인도자
축	도	임춘배 목사

2부 순서

12:00~1:00	점 심 시 간
1:00~2:00	보물찾기 및 게임
2:00~	기념 촬영 및 정리

수 요 예 배	오후 7:3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쓸 수없는 썩은 허리띠 (예레미야 13:1-11) 임춘배 담임목사

교회소식	- 예배 중에는 핸드폰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5 프로젝트 2025 비전 프로젝트가 프로그램별로 준비중입니다.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야 외 예 배 일시 : 10월 7일 (주일), 장소 : 양재 시민의 숲
(문의 손정환 행사홍보부장 010-6253-5525)
- 간 식 제 공 운영위원회에서 떡과 과일을 제공해주셨습니다.
- 교 우 동 정 김성찬 전지혜 결혼
일시 : 10월 20일(토) 오후5:30
장소 : 엘타워 7층 그랜드홀 (서초구 강남대로 213)
- 예 배 준 비 각 셀별로 돌아가면서 봉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내 및 정 리 주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예배준비 및 안내가 있습니다.
오늘은 분당셀에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안산셀입니다.

10월 오후예배 일정						
날짜		제목			강사	
10월	7일	구원론 4강			임춘배 담임목사	
10월	14일	야외예배			다 할 께	
10월	21일	구원론 5강			임춘배 담임목사	
10월	28일	구원론 6강			임춘배 담임목사	
건축헌금 입금계좌						
국민은행 025101-04-158561 예금주: 기독교한국침례회선한교회						
입금 후 확인은 재정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석 집사 : 010-4333-6242)						
2018년 성경강론 범위						
10/14	10/15	10/16	10/17	10/18	10/19	10/20
	욥기 22장	욥기 23장	욥기 24장	욥기 25장	욥기 26장	
※매주 성경통독 내용과 암송구절은 주보를 참조.						

한주간의 기도제목	하나님께 모든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구하며 그 뜻 가운데 순종하는 예배가 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는 은혜를 담임목사님 위에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가정예배

“생산적인 사람”

찬송 : ‘저 높은 곳을 향하여’ 491장(통 543장)

본문 : 요한1서 2장 27절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가정은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후원자를 둔 겁니다. 세상에 살며 하늘의 권세를 누리는 가정이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해야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변치 않는 축복의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 안에 기름부음이 거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만큼 다른 지혜를 구하겠다고 두리번 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한 곳, 생수의 근원인 주님에게서 지혜를 얻으면 되는 일입니다. 전에는 소비자로 살았습니다. 남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끊임없이 소비하며 살았죠. 내가 생산한 무언가를 남들이 찾아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둥에 세우는 사람들은 매일 복음의 새로움을 깨닫고 이를 이웃에게 나누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동프로이센의 쾨니히스베르크에서 1724년 4월 22일 태어난 임마누엘 칸트는 독일 전역에 영향을 미친 경건주의의 영향을 크게 받았던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세계의 아름다움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평생 다른 도시에는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어딜 가지 않았어도 ‘순수이성비판’을 집필합니다. 그가 산책하는 걸 보고 동네 사람들 시간을 맞췄다는 일화가 유명하기도 하죠. 늘 시계처럼 정확하게 살았습니다. 1804년 2월 12일 세상을 떠났을 때 교회가 조종을 울렸다고 합니다. 칸트의 삶을 보면 훌륭한 곳이 먼 곳에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태어난 고향에만 있어도 역사에 남을 철학자가 된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가 세상의 중심인 것입니다. 그분에게서 나오는 신령한 복음을 맛볼 때 우리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시원한 성령의 바람이 불면 세계와 우주의 무한한 넓이와 깊이를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감사할 줄 아는 젊은이로 성장하고, 시련이 와도 과거를 디딤돌 삼아 거뜰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린 이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넓고 깊은 신앙의 품을 가진 성도들이 돼 누구를 비난하지 않고 서로 어울리며 조화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돼야 합니다.

은혜의 말씀

제목

영적 파수꾼의 사명 (에스겔 3:16-21)

서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운 것처럼 우리도 이시대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1. 파수꾼의 사명

- (1) 졸지 말고 성실하게 일하며 생명들을 지켜야 한다.
- (2) ‘듣고’ ‘깨우치고’ (17절) ‘돌이키게 하라’(19,20절)
- (3) ‘그의 피 값은 네 손에서 찾으리라’(20절)
- (4) 사도바울의 고백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행20:26,27)

본론

2. 교훈

- (1) 교회와 성도는 이 시대의 파수꾼이다.
- (2) 그 사람이 주님을 믿지 않고 멸망한다면 나에게 책임이 있다.
- (3)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전하여 죄인들을 돌이키게 하라.

결론

가정과 직장과 사회의 파수꾼의 소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섬김이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예배기도	김대희 장로	박희태 장로
헌금위원	류은영 방성자 백미경	이용재 이호재 정구원
오후예배기도	야외예배	조계승 집사
안내	분당셀	안산셀

매일 성경 강독		욥의 답변(하나님의 능력확신)		날짜 : 10월 8일	
찬양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찬송가 272장/통일 찬송가 330장)			
통독		욥기 26장			
본문 내용		본장은 빌닷의 세번째 변론에 대한 욥의 답변이다. 본서 초반부에서 시작된 욥과 세 친구들과의 대화는 1,2차 주기를 진행하면서 계속 고조되어 왔다. 그러나 3차 주기에서는 팽팽하게 대립되어 오던 대화의 일정한 형식이 깨어지고 간략하게 답변하거나 또는 변론을 하지 않는 등 친구들의 궁색한 모습이 드러나는 반면 변론을 길게 하고 있는 욥의 자신감 있는 행동이 나타나고 있다.			
생각해보기					
1		(1) 욥은 반어법과 반복법과 비유법을 사용해 빌닷의 변론이 고난에 처한 욥에게 그 어떤 위로와 도움도 되지 못했음과 빌닷의 변론이 논리적 오류와 어리석음으로 점철되었다는 사실과, 그 빌닷의 변론이 욥의 문제와 상관이 없는 무가치한 것이었음을 역설적으로 밝힘 (2) 욥은 빌닷의 변론이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고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기 위해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 빌닷보다 더욱 깊고 풍성한 자신의 신앙지식을 드러냄 (3)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깊고 풍성할수록 성도를 바른 신앙으로 이끄는 것이다.			
핵심 단어		2절. 힘. 원어 <코아흐>는 '생기, 능력, 고통과 좌절을 극복하는 힘'을 뜻. 기력 없는 팔. 원어 <오즈>는 '강한 힘, 위엄'을 뜻, 본문에서는 아무 힘도 발휘할 수 없을 정도로 무기력한 상태에 있음을 비유. 3절. 지혜. 원어 <호크마>는 '지식, 지혜'를 뜻. 단순히 배워서 얻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주는 영적인 온전함을 가리킴. 지식. 원어 <투쉬야>는 도움이나 능력을 주는 참된 지혜를 의미. 4절. 신. 원어 <네쉬마>는 '호흡, 영감'을 뜻. 즉 사람에게 호흡을 준 존재를 나타냄. 5절. 음령. 원어 <레파임>은 '풀려지다' 라는 동사 <라파>에서 유래하며 '영, 죽은 자'를 뜻. 곧 죽어서 사람의 육체로부터 분리되는 영적인 존재를 나타냄. 큰 물. 원어 <마임>은 땅 아래에 있는 많은 양의 물들을 가리킴. 수족. 원어 <샤켄>은 물에서 사는 물고기나 식물, 또는 바다의 괴물을 나타냄. 떠나니. 원어 <홀>은 '진통하다, 두려워하다, 흔들리다, 고통하다'를 뜻.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셀 모임 나눔지		“주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라”
찬양과 기도	주께 가오니 / 나 말은 본분은 (595장/통 372장)	
묵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잉글랜드의 신경의학자 올리버 울프 섹스(Oliver Sacks)는 1985년 그의 환자에 대한 사례를 기술한 책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에서 1975년에 만난 '코르사코프 증후군'(뇌의 티아민<비타민B1> 결여에 의해 생기는 신경학적 장애)이라 불리는 신경 질환을 앓고 있는 지미(Jimmie) 사례를 소개합니다. 지미는 섹스 박사의 모든 질문에 대답합니다. 어린 시절의 집, 친구, 학교 및 1943년에 입대한 해군을 기억했고, 여전히 모스 부호를 기억했으며, 1945년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해군에서 했던 봉사를 생생하게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억은 거기서 완전히 멈춥니다. 지미는 1945년 이후부터 현재(1975년)까지 30년 간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는 트루먼이 아직 대통령이라 생각했고, 심지어 몇 분 전에 일어난 일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49세(실제 나이)가 아닌 여전히 19세라고 생각했습니다. 9년 동안, 환자로서 지미와 섹스 박사는 반복해서 서로를 다시 소개하고 소개했습니다. 센터 직원들은 지미를 ‘잃어버린 영혼’이라고 불렀습니다. 기억이 없다면,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 영혼은 표류하게 됩니다. 기억은 우리를 과거에 고정시키고, 현재를 해석하며, 미래를 위한 길을 그려 줍니다. 내 삶에서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가장 소중한 기억은 무엇인지 나누어 보세요.	
말씀 나누기	시편 106:1~12	
묵상포인트	성경의 복은 세상이 말하는 복과 다릅니다. 시편 저자는 정의를 지키며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복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이웃에게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복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성도가 일평생 기억할 것은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함께하시며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시험에 빠져 최악의 길로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잊지 않음으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이 구원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나에게 주신 메시지		
관찰과 묵상	시편 저자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나요?(3절) 그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4~5절)	
적용하기	시편 저자가 말하는 복(3절)과 세상이 말하는 복은 어떻게 다른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서 받은 복을 나누어 보세요.	
함께 기도하기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공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 주님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먼저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의 성품을 의지해 구원 얻게 하소서.	
나의 기도문		
기도 (중보기도)		

매일 성경 강독		악인의 번영, 인생의 딜레마	날짜 : 10월 12일
찬양	구원으로 인도하는 (찬송 521장/통일 찬송가 253장)		
통독	욥기 21장		
본문 내용	욥은 자기 말을 들어 달라는 말로 대답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위로하기 위해 온 친구들에게 도리어 자신의 말을 들으면 그들에게 위로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지금까지의 그들의 논증을 강하게 반박하고 악인이 성공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욥은 친구들의 주장이 늘 옳은 것은 아니며, 그러므로 그것을 자신의 경우에 적용시킬 수 없음을 보여 줌으로써 그들의 논증을 반박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관찰이 피상적인 것이고, 비범한 것이 아님을 지적하면서 두 번째 논쟁의 단락을 끝맺습니다.		
생각해보기			
1	욥의 답변(결론적인 견해) (1) 지금까지 욥의 답변은 친구들의 일방적이며 편협하고 원칙론적인 인과 응보론적인 사고에 입각해 욥을 죄인으로 매도하는 것에 대해 자신의 무죄함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그들의 정죄함에 감정적으로 반발하고, 원인 모를 고난에 대한 답답함을 호소했음 (2) 이제 욥의 답변은 보다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성격을 지니며 그들의 주장들에 대해 반론을 펴나감 (3) 먼저 욥은 친구들의 인과 응보적 논리에 대해 현세에서의 악인의 형통이 많음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그들의 모순점을 공박함. 또한 현세에서는 악한 자의 징벌이 보류될수 있으며 의인역시 악한 자와 동일하게 죽음을 경험할수 있음을 말하며 친구들의 변론의 무익성을 지적함 (4) 현세에서의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통은 일시적일뿐 궁극적인 것이 아님을 깨닫고 일시적인 것에 연연하지 말고 최종적인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며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		
핵심 단어	4절. 초급하지. 급박한 위기를 맞이하여 매우 다급하고 초조한 상태를 의미함. 8절. 씨. '곡식, 자손, 결과, 열매'를 뜻. 본문에서는 현세에 받을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축복을 나타냄. 10절. 낙태. 고대에는 하나님의 축복 중의 하나가 자손이나 가족이 번성하는 것이었으므로 유산을 하나님의 징벌로 여겼음. 12절. 소고. 가족을 이용하여 만든 타락기. 주로 여인들이 잔치 때나 행진할 때 연주하였음.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매일 성경 강독		욥의 답변(의로운 판단자)		날짜 : 10월 9일	
찬양		너 시험을 당해 (찬송가 342장/통일 찬송가 395장)			
통독		욥기 23장			
본문 내용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세번째 답변이 기록되어 있다. 특히 본장은 본서 전체로 볼 때 욥의 일곱번째 답변의 첫 부분으로서, 욥이 자신에게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불평하는 내용을 담아욥 자신의 깊은 심중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욥이 이제는 친구들에 대해 반박론을 펼치기보다는 자신의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 직접 항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본장에서 욥은 엘리바스가 던지는 무정한 비난과, 회개를 간구하는 그의 논조에 대해 비난쟁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독백에 가까운 달변을 하고 있다.			
생각해보기					
1		(1) 욥은 이전과 달리 엘리바스의 변론에 대해 직접적으로 공박하거나 자신의 무죄함을 변호하기 보다는 하나님께 나아가 호소하려는 자신의 의지를 나타냄 (2) 욥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판단을 받기 원하는 갈망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뢰를 나타냄 (3) 그와 동시에 여전히 고난 중에 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한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임으로써 인간적 나약성을 드러냄 (4) 어렵고 불행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과 주권적 섭리가 있음을 깨닫고 확신하며 끝까지 순종하는 인내의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한다.			
핵심 단어		2절. 오늘도. '지금도, 항상'을 뜻하는 표현. 혹독히. 원어 <미리>는 '고집하는, 반역하는, 맛이 쓴'을 뜻.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타락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나타냄. 3절. 보좌. 원어 <테쿠나토>는 '이미 준비되거나 배열된 거처'를 가리킴. 본문에서는 하나님 앞에 마련된 심판대를 뜻. 10절. 아시나니. 원어 <야다>는 '직접 보아서 확인하다, 알아차리다'를 뜻. 자신이 체험하여서 직접 느끼게 된 지식을 가리킴. 11절. 지켜. 원어 <와마르>는 '울타리를 치다, 망보다'를 뜻. 즉 한순간도 쉬지 않고 안전을 위하여 방심하지 않는 행동.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매일 성경 강독		옉의 답변(최종심판)	날짜 : 10월 10일
찬양	환난과 핍방 중에도 (찬송가 336장/통일 찬송가 383장)		
통독	옉기 24장		
본문 내용	본장은 엘리바스의 세번째 변론에 대한 옉의 답변의 두번째 장이다. 옉은 본장을 통해 세상에서 행악자들이 멸망치 않고 변역을 누리는 사실에 대해서 비난함과 동시에 그 사실에 대해 침묵하고 계신다고 하나님께 대해 항의하고 있다. 사실 악인이 멸망치 않고 옉히려 변성한다는 이론은 옉이 앞에서 소발의 변론에 답하면서 주장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한 것은 엘리바스를 비롯한 모든 친구들이 인과 응보의 논리에 입각해서 옉의 재난을 죄의 결과로 단정지어 악인이 징벌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생각해보기			
1	(1) 옉은 불의한 현실 상황을 들어 엘리바스의 변론에 대한 실제적인 논박을 계속함 (2) 엘리바스가 주장했던 기계적이고 현세적인 인과 응보론에 대해 악인의 형통함이 성행하는 불의한 현실 상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자신이 당한 고난 또한 죄의 결과가 아닌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암시함 (3) 옉은 이 세상에서는 의인이나 악인이 분명한 구분없이 변역을 누리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나,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날에 이르러서는 예비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시행된다고 확신함 (4) 절대적이며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항상 기억하여 현세에서 악과 의에 대한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과 포상이 없다 할지라도 악을 경계하고 선을 행하는데 게으르지 않도록 힘써야 할뿐 아니라, 불의한 현실 상황 속에서도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의 공의 실현을 바라보며 소망과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		
핵심 단어	2절. 지계표. 자신이 가진 땅의 한계를 명확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돌. 5절. 간음하는. 십계명의 제7계명에 언급된 범죄 행위. 부부간이 아닌 다른 사람과의 성적관계를 나타내며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금하신 행위를 나타냄. 저물기름. 원어 <네셰프>는 해질 무렵 땅거미가 지는 황혼 무렵을 가리킴.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매일 성경 강독		빌닷의 3차변론	날짜 : 10월 11일
찬양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송가 540장/통일 찬송가219장)		
통독	욥기 25장		
본문 내용	본장은 그 내용상 하나님의 거룩하신 위엄과 권능을 찬양하는 부분(1-3절)과 인간의 의롭지 못함과 나약성을 말하는 대목(4-6절)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엄격히 구분하는 것으로 빌닷은 이처럼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초월하심을 내세워 욥의 이론을 논박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해보기			
1	(1) 빌닷은 이전에 악인에 대한 징벌에 대해 강력하게 언급하며 욥을 신랄하게 정죄하던 것과는 달리 여기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인간의 비천함을 원론적으로 비교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욥이 악하다는 것을 암시함 (2) 지금까지의 친구들의 변론은 욥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위로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편협하고 잘못된 인과 응보론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욥을 정죄하려는 율법주의자의 태도를 벗어나지 못함 (3) 인간적인 논리와 노력만으로는 참된 위로와 완전한 문제 해결이 이루어질수 없고, 인간 현존의 모든 문제가 오직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되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종말론적 공의 실현을 통해서만 완전히 해결될수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핵심 단어	2절. 권능. 원어 <마샬>은 '지배하다, 다스리다, 통치하다'라는 뜻을 지니며 보통 하나님이 소유하신 주권을 가리킴. 베푸시느니라. 원어 <아사>는 '행하다, 수행하다, 준비하다, 만들다, 이루다, 성취하다'등의 뜻을 지님. 부녀에게서 난 자. 세상의 모든 사람을 뜻. 이들은 죽게 되고 이 세상 가운데서 사는 동안에도 죄로 인하여 고통과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음.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